

# 어항 준설 체제 마련이 시급하다

## 상시 준설로 어항의 기본 기능 유지 절실

박 원 길 한국어항협회 기술사무이사

그 래 어항개발의 여건변화와 이로 인한 대규모 어항 개발 및 신규 어항개발을 지양하는 정책방향의 변화로 어항의 매몰 저감대책 시설 규모도 막대한 사업비와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점차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어촌의 생산기지인 어항의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내의 적정한 수심은 항상 유지되어야 한다. 항내 매몰로 인한 어선의 이용성 저하로 어업생산력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어업인의 소득저하와 아울러 항내를 진·출입하는 어선의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한다면 어항의 기본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내 매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가장 최선의 대책은 항내 매몰에 대한 원인 규명과 함께 매몰유발 인자를 제거하는 것이 될 것이나 이는 자연현상의 규명이라는 자연과학적·공학적인 연구의 미흡으로 완벽한 규명이 어려운 실정이다.

다음은 매몰 저감 대책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매몰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막대한 사업비 조달의 문제와 함께 사업 실패시 국가예산의 낭비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항내 매몰에 대한 가장 소극



적이지만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인 준설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 또한 대규모 준설 시 투기장 조성에 따른 공사비 및 부지 확보 등의 어려움과 준설기간 동안 어선 이용이 제약을 받고 이로 인한 관광객의 감소로 어업인 소득이 감소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대규모 준설에 따른 어항 구조물의 기술적인 안전검토와 함께 인근의 환경영향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시준설을 통한 소규모 준설이 새로운 대안으로 우선시 되고 있다. 소규모 준설은 환경악영향을 최소화시키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유지관리 차원의 준설

로 어항의 기본기능 유지를 위해 무엇보다도 우선시행 되어져야 할 사업 중의 하나이다. 더욱이 수산업 중심의 어항기능 뿐만 아니라 부가적으로 관광·레저·문화의 복합기능을 가지고 어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소규모 준설이 현실에 적합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된다.

어항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상시 준설은 어선의 어항이용 불편을 해소하며

안전한 통항항로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생산·관광·레저·문화의 어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사업 중의 하나이며 이를 위한 어항의 상시 준설 체제를 무엇보다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어촌어항소식)

**바다정화의 지름길!**  
축적된 경험·전문성·기술력의  
**Know how로 승부를 걸겠습니다!**

수일3호  
(다목적 침적  
폐기물 인양선)

침적폐기물  
수거작업  
(군산 선유도)

**수일종합환경(주)**

회장 김 수 일 (해고13N)  
사장 김 수 남  
전무 최 승 재 (수대68學番)

부산시 동구 초량동 1212-3 창원빌딩 2F  
TEL : (051)463-5828(24 HRS)  
FAX : 467-2125 TLX : K52034 SYEEC  
E-mail : so015828@hanafos.com

**수일애저개발(주)**

이장경학 경비업 ○ 해상외출운송업  
예상오염 방제업 ○ 선박인대업  
유장경소업 (조선선 및 크레인 부선)  
선박구난업(1급) ○ SK주식회사 협력업체 등록